

우리협회는 지난달 강원도건축사회를 끝으로 모든 총회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회원의 기대와 협회의 각오도 현재 처한 우리 어려움이 되고 있는 시장 정상화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적 안정으로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한마음의 장이자 축제였기를 상상해본다.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정 공평을 국가와 정치적 본령으로 삼는다. 우리 경제 발전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발전의 공정성, 생태계적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게 하였다.

2011년 허가 면적 현황을 보면 총 허가 동수는 큰 등락 없이 약간의 수평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경기 체감 같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업무 분배의 문제, 새로운 시장에 대응할 전략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정 시장가치의 붕괴이다. 설계 업무의 보수대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물로 흔들리고 인력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업무량의 분배에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 창작물로 인정받기보다는 저가요구 유혹에 20년 넘게 허가 행정 절차를 위한 수단비용 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행동 양식의 윤리적 문제이다.

공생발전에서 길을 찾자

Let's find the answer with symbiotic growth

건축설계 시장의 위기 진단

우리 건축제도 시장의 심각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설계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고,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은, 사람은 많고 일거리가 없고 일을 해도 제대로 대가를 못 받는 현재 우리 설계시장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첫째, 건축사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초래 했다고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사회 변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양극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와 건축물의 수요에 대비한 장기정책이 없이 규제개혁과 시장원리만을 강조하여 90년대 중반, 일시에 30년간 배출한 수보다 많은 건축사를 일시적으로 시장에 내몰았다. 이 시기부터 수요 공급과 내부자율 조정이 상실되었다.

둘째, 지난 10년간의 업무량을 보면, 양의 문제이기 보다 인력수급의 문제였고,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제사업은 공생발전의 시작이다

우리협회는 2011년 1월 24일부터 공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업무의 보증과 고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법적 환경은 쌍방 간의 책임과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공정거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통제 없는 제 살 깎기 경쟁은 무료 계획 설계, 무한업무 서비스, 무대책 저가수주로 3무의 설계시장 환경을 만들어 업무가 하향평준화 되는 문제를 낳았다.

수준 높은 도서를 생산하여 보증하고 손해배상 공제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은 설계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운영의 합리화는 회원을 위한 설계·감리 개선 향상과 경제적 이익으로 환류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사업은 설계시장 공정거래의 길을 열고, 상실된 동료 간의 윤리성 회복으로 이어져, 건축문화 발전과 회원 모두의 공생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



이중정, KIRA |
Lee, Jong-jeong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약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위원장과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